

여수시, 낮엔 전시·체험 밤엔 공연…낮과 밤 다른 매력

위클리 콘서트부터 안유성 명장 쿠키쇼에 단체 관람으로 박람회장 활기

12일 토요일 저녁 7시,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열린무대. 해가 바다 너머로 내려앉자 잔디밭과 계단식 객석이 관람객들로 채워졌고, 가수 김용빈·천록담·최재명의 무대에 가족과 연인들의 박수와 웃음이 이어졌다.

지난 5일 개막한 여수세계섬박람회 첫 주말을 지나며 활기를 찾고 있다. 개막 직후 “불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빠르게 보강하면서 주행사장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 금·토 콘서트, 일요일엔 명장의 쿠키쇼

변화의 중심은 저녁 공연이다. 조직위는 지난 금·토요일 저녁 7시 열린무대에서 ‘위클리(Weekly) 콘서트’를 열었다. 바다를 등진 무대에서 60분간 이어지는 공연은 예약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어, 낮에 전시를 둘러본 가족과 연인들이 자연스럽게 저녁까지 머무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일요일에는 즐길만한 행사가 한 가득이다. 가장 먼저 펼쳐지는 무대는 주방이다. 13일 오후 1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얼굴을 알린 제16대 대한민국 조리 명장 안유성 셰프가 열린 무대에서 ‘섬 쿠키쇼’를 연다. 여수 삼치 타다키와 돌산 갯 묵은지 룰, 돌문어·갸오징어와 거문도 방풍 유자 폰즈 초회 등 섬 식재료 요리를 시연하며 관람객과 이야기를 나눈다. 쿠키쇼는 9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 4회 진행된다.

오후 2시 특별공연장에서는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 서아프리카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투칸에이엠지의 공연이 바로 그것이다. 섬박람회에 입장한 모든 관객들은 아직은 뜨거운 일요일 오후 햇빛과 함께 이

국적인 서아프리카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

오후 4시 열린무대에서는 ‘섬의 리듬’이라는 콘셉트로 랜덤플레이댄스가 펼쳐진다. 400만 유튜브인 ‘춤추는 곰돌이’가 출연하고 전남광주에서 활동 중인 3개 지역 댄스팀(MAF, 스텝댄스 스튜디오 퍼포먼스팀, 잭팟크루)과 특별한 콜라보 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 피날레 무대 ‘섬, 춤으로 잇다’를 주제로 여수시티무용단이 장식한다. 열린무대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한다. 관람객들은 랜덤플레이댄스의 화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전혀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시티무용단이 펼쳐는 오동도의 전설과 푸른 바다를 담은 창작무용극인 ‘섬섬섬 오동도’ 공연을 끝으로 섬박람회는 하루의 막을 내린다.

/이유빈 기자



400만 유튜브 '춤추는 곰돌이'가 출연하는 '섬의 리듬' 랜덤플레이댄스 공연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추석 맞이 가로·보안등 일제 점검

순천 시민들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향한 지역사회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순천대 의대 설립 염원 시민 릴레이 성명’에 나섰다.

11일 풍덕동·조곡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에서 추진 중인 주민총회 및 단체회의를 통해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순천 시민사회는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미래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는 한 목소리 아래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신설의 조속한 최종 확정 ▲전남권 필수 의료체계 완성 ▲국가가 정한 규칙과 평가 결과 신뢰 ▲공모 절차와 평가 결과 신뢰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주민총회와 단체회의를 통해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립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뜻을 지속적으로 모아갈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3차 추가모집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년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옛 광주광역시 제외) 내에서 도서 구입, 학원 수강,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복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의 바우처를 1인당 연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28세 이하(1998~2007년 출생자) ▲신청 개시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22개 시·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2024년 9월 14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기존 광주광역시 거주 기간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은 ‘MY 광양’ 앱이나 광주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이 충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1월 중 선정결과와 카드 발급 관련 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박미경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3차 추가모집이 올해 청년 문화복지카드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이나 광양청년꿈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곡성 서산사, 문화유산과 음악이 어우러진 「산사음악회」 개최

곡성군 곡성읍에 소재한 서산사 경내에서 오는 9월 19일(토) 산사음악회가 개최된다. 이번 산사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 전통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과 문화유산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행사로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아름다운 산사 풍경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일상 속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사는 전통 사찰로 시 유형문화유산인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곡성 서산사 동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음악회는 서산사가 간직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 당일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문화유산 관람이 가능하

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오후 2시 30분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산사 주지 덕해스님은 “이번 산사음악회가 아름다운 산사에서 음악과 함께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전통 사찰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과 서산사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알리고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구례, 바로저축은행 1천만원 성금·성품 기탁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구례군은 지난 11일 ㈜바로저축은행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및 성품 1천만 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및 성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윤호 바로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구례군과 맺은 소중한 인연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사회에 필요한 온정을 전하고, 구례군과의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달했다.

박지호 만만만생명운동 국내본부 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가치가

높아지고 실현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고 의사를 전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바로저축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탁을 통해 약정하신 1억 원의 나눔을 모두 실천해 주신 뜻을 소중히 새기고, 기탁해 주신 성품 및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탁은 지난 2022년 구례군과 바로저축은행이 체결한 1사1촌 상생 협약에 따른 것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바로저축은행은 협약에 따라 5년간 총 1억 원 기탁을 약정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1억 원에 달한다.

/심선섭 기자

